

지역 청년들이 선사하는 낭만있는 여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나눔

오늘 크로스포맨·쇼인어스

내일 록밴드 맥킨토쉬 라이브

지역 청년 예술인·단체가 활력 넘치는 공연으로 낭만 있는 여름밤을 선사한다.

광주문화재단은 7~9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을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지역 청년예술인에 창작과 공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무대에 오르는 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으로 7~8월 활력 넘치는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7월 첫 공연에 나서는 팀은 앙상블 비비드다. 이들은 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비비드가 비비드하다' 공연을 진행했다.

'앙상블 비비드'는 플루트 박소현, 클라리넷 정진용, 호른 조혜선, 튜바 장현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통한 앙상블 구성으로 색다른 음색을 들려주며,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연주한다.

8일 오후 7시 30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크로스포맨의 '크로스포맨&쇼인어스 팝페라 콘서트'가 열린다. 크로스포맨과 쇼인어스



1 크로스포맨 2 쇼인어스 3 맥킨토쉬

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됐다. 클래식,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관객과 소통하고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루하고 어렵지 않게 팝페라 공연을 구성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다.

9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에서는 맥킨토쉬의 'McINTOSH LIVE' 공연이 열린다.

맥킨토쉬는 전남대학교 중앙동아리 록 밴드 단체이며, 1976년 동아리 설립 이래로 록 음악과 메탈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음악을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기존의 틀에 박힌 록 음

악을 넘어서 부드러운 인디락, 유명한 팝 음악, 인기 있는 대중가요 등 보다 더 장르의 다양성을 갖춰 개인적인 취향을 타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람 문의 및 전화예약은 문화공간본부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조선대병원 달팽이 갤러리 오픈

조선대병원이 달팽이 갤러리를 오픈, '치유의 시간을 걷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코로나 19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미술을 통한 친근한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갤러리는 병실이 위치해 있는 병원 1관 3층에서 7층으로 이어지는 중앙계단 통로 공간에 조성됐다. 작품은 내년 2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미술대학 재학생 40여 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환자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병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갤러리 오픈식에서 김경중 병원장은 "이번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김경란 '둘 중 하나'

광산구 별밤 미술관 7월 전시

광주 광산구 5개 공원에 조성된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 '별밤 미술관'이 7월 시민의 문화감수성을 채워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수완 별밤 미술관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남겨진 숲과 인공조경을 주제로 한 김용안 작가의 '은현의 사유'를, 신창 별밤 미술관은 지리산 언저리 노란 물결처럼 피어오른 산수유꽃을 담은 류재웅 작가의 'Dream of yellow flower' 전시를 연다.

7월 별밤 미술관 전시는 8월에도 장소를 바꿔 운영될 예정이다.

소촌아트팩토리 송정작은미술관에서는 분별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관점의 경계'에 관한 전시를 진행 중이다.

광산아트플러스 49번째 전시로서 관점의 경계에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담았다. 설치,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통해 김경란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송정작은미술관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최진화 기자

조형물·섬유 패션디자인 즐기세요

전일빌딩 245 프로젝트 기획전

7월 한 달간 전일빌딩 245에서 다채로운 조형물과 섬유 패션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1층 로비에서는 전일 245전 프로젝트 'Bon voyage-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전에 참여하는 최순임 작가의 조형물과 평면작품 10점을 볼 수 있다. 전일 245전 프로젝트는 전일빌딩245의 예술적 색깔을 입히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순수하고 꿈을 표현하는 고양이와 소녀 '모리'의 내밀한 애착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연'과 '동심'으로의 귀환을 여행자의 이미지를 통해 작가 작업에 관통하는 주제 '꿈·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만날 수 있다.

3층 시민갤러리에서는 김나라연 작가의 첫 개인전인 'De+Art'전이 오는 15일까지 진행

된다. 조선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섬유패션과 시각디자인 분야를 결합한 약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서 충돌하는 경계선에서, 미와 추, 사회적 환경 관련 문제 갈등 등의 가치 중심적인 내용을 쫓고 이어 붙이는 재봉틀 역할을 하고자 했다. 특히 단순히 시각적인 콜라주가 아닌 가치에 대한 콜라주 같은 작업은 관객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주제 안으로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그 외에도 전일빌딩 안에서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245사업단이 준비한 여러 공연과 플라마켓 등이 열린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나라 기자



최순임 '모리와 고양이'



김나라연 '영조대왕 도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맑고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미래를 가꿔 나가는 고객중심의 감동 경영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한진레미콘 대표이사 김광태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103-80
TEL 061) 393-8311 FAX 061) 393-8200

